

추석 가족 예배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기쁜 일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으로 감싸주신 부모 (혹은 조부모)님께 감사하며 추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식사		인도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추석을 맞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64장	다 같이
기도		말은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흠어져있던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정에서 공급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추수 계절 가을을 허락하셔서 봄부터 수고한 결실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논밭에 오곡백과가 영글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글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열매를 우리가 나누어 먹듯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성경봉독	시 136:1-3, 23-26	말은 이
말씀	감사하는 가족이 됩시다 !	말은 이

오늘 추석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136편에서 시인과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것입니다(4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6-9절).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였고, 땅을 주셨고 고난 가운데 돌보아 주셨습니다(10-22절). 또한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23-26절).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왜 감사해야 하나요?

136편은 선창과 제창이 있는 노래입니다. 제사장이 앞 구절을 부르면, 뒷 구절은 예배 공동체인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앞 부분이 감사의 내용이라면, 뒷 부분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입니다. (1절) 그 분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심은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희생으

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각양 좋은 것을 주신 변함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약 1:7).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무엇을 받고,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분 자체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고백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 단어에 감사는 Thank, Gratitude 있습니다. Thank는 Think (생각하다)의 어원이 같고, Gratitude는 Grace (은혜)의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 분 자신을 생각하고 그분의 성품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양하는 복된 가정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한 사람씩 돌아가서, "1 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백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로 선포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권 면 ----- 말 은 이

어른이 말씀으로 간단하게 권면할 수 있다.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족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한다

찬 송 ----- 559장 ----- 다 갈 이

주 기 도 문 ----- 다 갈 이



추석 가족 예배

